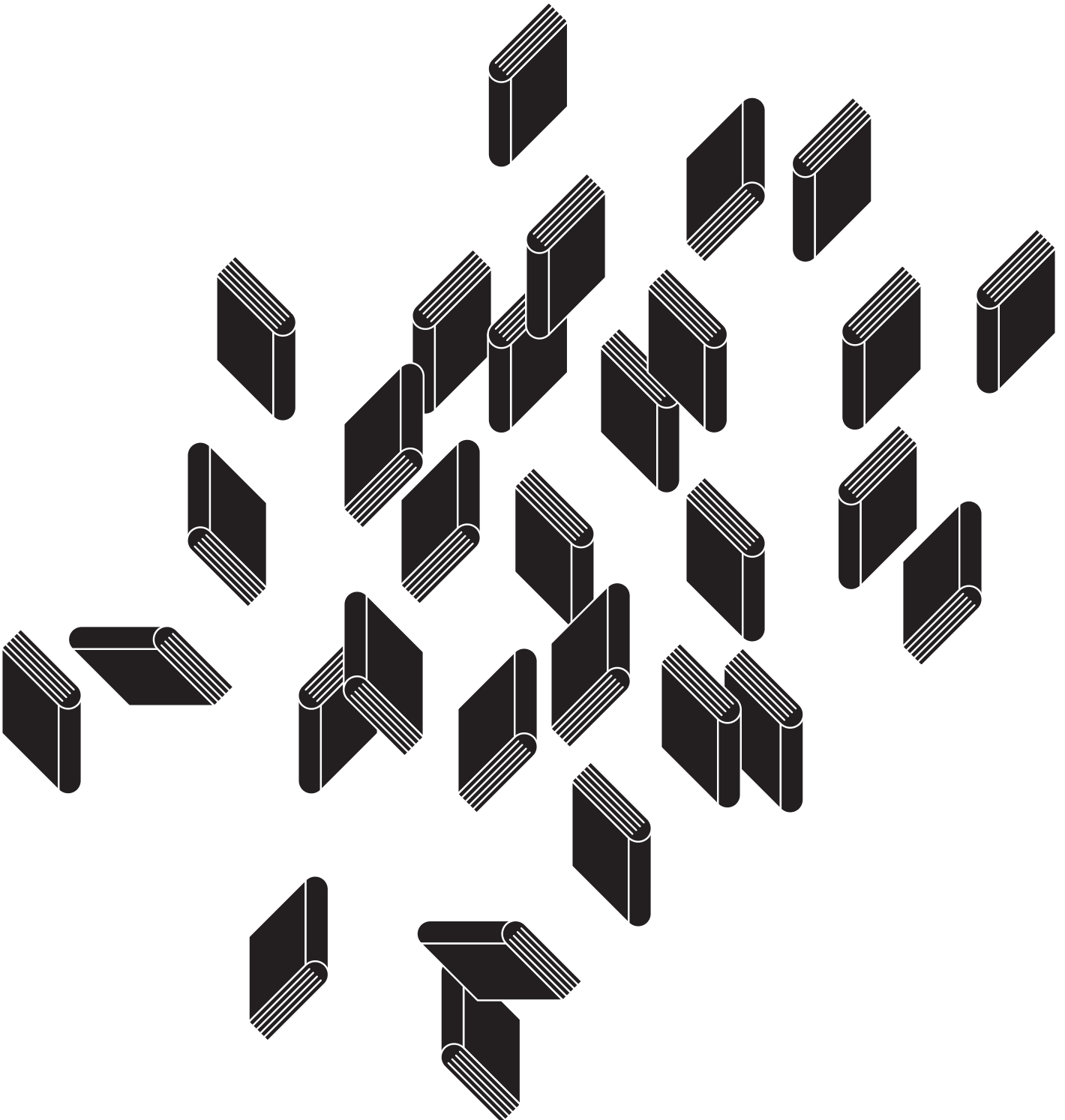


지난 2019년 1월 22일 길벗 무따기홀에서 열린 편집자 집담회를 녹취한 기록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날 밤 편집자들이 좁은 공간에 옹기종기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풍경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 자리에 모시지 못한 많은 편집자와 지망생, 관심 있는 독자들과 그 자리에서 나누는 이야기를 공유하고자 이 파일을 올립니다. 『편집자 되는 법』 저자 이옥란 선생께서 녹취를 직접 풀어 주셨고, 함께하신 세 분이 녹취록을 다듬어 주셨습니다. 모든 편집자가 제자리에서 기쁘고 즐겁게 책을 만들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드립니다.

(유유 편집부)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유유출판사의 조성웅 대표가 그런 주제로 글을 썼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해 주셔서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해야 할 모든 얘기를 책에서 다 한 것 같지 않고 또 여러분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책에 다 들어 있지도 않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에 섰어요. 이 책 자체가 뭔가 답을 보여 주는 책이라기보다는 ‘편집자 되는 법’이라는 주제에 대한 발제문이 아닐까 생각해요. 일단 책이 되어 나왔으니 독자가 읽기 나름일 테지만, 용도가 있는 책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발제에 앞서, 문제의식을 갖게 된 계기를 밝힐 겸 제 소개를 먼저 해 보겠습니다.

저는 서울출판예비학교 편집자 과정을 맡고 있는 책임교수고요, 지금까지 일곱 기수를 진행했습니다. 또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교정 강의를 맡아 온 지도 6년쯤 되었습니다. 반년짜리 출판학교를 마치면 곧바로 출판사에 편집자로 취업하실 분들과 일곱 해를 보내고 보니, 수료하신 분들의 뒤를 줄곧 지켜볼 수밖에 없더군요. 새로 과정을 마친 분들이 선배들이 간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지요. 이제 저한테는 ‘이분들이 어느 회사에 취업을 할까’ ‘그 회사는 어떤 인재를 원할까’ ‘그 회사 편집부는 어떤가, 일할 만한가’ ‘그때 그곳에 취업했던 분은 지금……’ ‘그 회사는 지금……’ 등의 질문이 상수<sup>常數</sup>입니다. 재직자 과정에서 뽑는 분들에게서도 자주 열정의 이면에 도사린 ‘불안정의 그늘’을 발견하곤 했지요. 출판사에서 경력자를 추천해 달라는 연락도 자주 받습니다. 덕분에 원하는 경력과 자질을 갖춘 편집자를 구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사정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해 동안 제가 본 출판 관련 데이터도 출판 종사자들, 특히 편집자들의 업무 환경이 전반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을 공유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해마다 이 일을 찾아서 쉽지 않은 전형을 거쳐 출판학교에 등장하는 청년들이 제자리에 무사히 뿌리를 내릴 수 있어야 출판 교육의 효용도 높아질 테니까요. 역량 있는 청년들이 출판계에서 일하겠다는 포부를 안고 경쟁을 거쳐 출판학교에 옵니다. 반년의 교육과정을 더해 실력을 갖추곤, 희망을 품고 출판계로 나아가지만 그다음 세상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그들이 나아가려고 하는 현장은 바로 선배들이 맹렬히 일하다 지쳐서 사라져 버린 곳이 아닌가. 이런 고민이 찾아든 적도 많았습니다. 물론 출판계의 문제가 누구 한 사람이 진단하고 비판하고 목소리 높인다고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건 일찍부터,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출판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 출판에는 무엇보다 책을 만드는 ‘사람’, 편집자가 필요합니다. 열정 있고 능력 있는 청년들이 업계에서 일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책의 시대가 사양길을 걷고 있더라도 책은 만들어야 하고, 잘 만들어야 합니다. 선배가 잘되어야 후배들도 성장합니다.

『편집자 되는 법』은 제 나름대로 뽑은 문제에 제언을 붙여 본 것입니다. 저도 출판사를 나온 지가 10년이 다 되어서, 현장의 사정을 다 알지는 못하는 변방의 처지에 있으니 이야기를 꺼내기가 조심스럽기도 한데요, 의견을 나눌 부분이 없지는 않으리라 기대합니다.

그럼,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출판이 사회의 거대 담론을 주도할 수 있으려면 사람이 커야 한다

『편집자 되는 법』은 편집자라는 ‘업’에 들어서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초년의 편집자들을 생각하며 쓴 책입니다. 소재를 단편적으로 다루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에디터십에 관한 글이 아니라 ‘어떻게 일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편집자 한 사람이 제대로 일할 수 있으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4~5년은 일해야 편집자다. 그 전에는 보조 편집자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 정도 연차는 되어야 자기 업무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연차에 다다르기까지가 수월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입사 첫해에 단행본을 책임편집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판을 깔고 운영할 만한 안목과 실행력은 개인의 실력만으로 하루아침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출판 편집자로 성장하기가 갈수록 딱딱한 게 현실입니다. 20대나 30대 초반쯤 업에 등장해서 한 10년 열심히 일하고 나면 베테랑으로서 역할이 생겨야 하는데 그 수가 대폭 줄어든답니다. 쉽게 말해 한창 일할 시기에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사라져 버린 선배들의 노하우를 전수받지 못한 후배들은 이미 지난날 극복되었을지도 모를 과오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이 사태는 결국 산업 전반의 문제로 귀결하지만, 무엇보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당장 일터를 잃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해 온 게 어딘데, 설 자리가 없다니요? 크게 따지면 업계 사정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독자는 줄고 원가는 상승하고 유통구조는 개선되기 어렵고 눈앞의 사정이 엄혹하니 미래 전략을 세울 여력은 부족하고…… 그런 와중에 (자료에 따르면) 임금은 적고, 일은 너무 많고, 자기 케도를 찾아 전망을 세우기 쉽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빈약한 상황에서 권한 없이 책임만 강조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해내고 감당하겠다고 애쓰면서 일하다가 외곽으로 밀려나가거나 업을 떠납니다.

실력 있는 편집자가 업계를 떠나는 것도, 능력 있는 청년들이 일을 시작한 뒤 실력을 키우지 못하는 것도, 업계로서는 큰 손실이지요. 원론적으로 얘기해 보죠. 출판은 책을 펴내는 행위입니다. 편집자는 책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편집자가 일할 수 있어야 출판도 가능합니다. 일하는 사람이 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좋은 책’이란 장기적으로 보아 어불성설입니다. 좋은 책이 대중적으로 읽힌다면 좋겠지만 출판은 대중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도해서 대중이 모일 판을 기획하는 일이 아닐까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편집자라면, 편집자를 일하게 하는 환경에 대한 고민은 그래서 출판의 우선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능력 있는 편집자를 키워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부르짖기만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선 누구보다 편집자 자신이 자기 문제를 만들고 해법을 찾으며 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당사자가 먼저 자신의 문제를 말하고 주체로 나서야지요. 그러지 않고서 회사가, 업계가, 국가가 나서서 사정이 나아지도록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말하는 건 허공을 향해 해법을 구하는 거나 다름없는 일입니다.

● **담론이 필요하다: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일하고 있으며, 어디서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

**편집자란 무엇인가**

사실 『편집자 되는 법』은 역설적인 제목입니다. 이 책은 편집자 되는 법을 차근차근 알려 주는 책은 아닙니다. 불안정한 환경에서 중심을 잡고 나아가는 이는 제가 아니고 지금 거기서 일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답을 모릅니다. 아니 그보다, 흔들리는 세계의 변방에서 문제를 찾는 중입니다. 눈높이를 조정하여 우리가 어디에 발 디디고 있는지, 바탕에 깔린 전제를 확인하자고 했을 뿐입니다. 책 한 권을 만드는 것이 반복되어 경력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책만 열심히 만들어 내다 보니 ‘편집자’로 일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엄혹한 환경에서나마 기본과 원칙을 지키며 살아남아야 편집자가 된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세계가 지속되지 못한다면 일하는 사람도 거기서 지속될 수 없기에, 적어도 자신이 직접 몸담고 일하는 과정에서부터 좀 더 멀리 보고 본질적인 것을 궁구해서 원칙을 갖고 이 흔들리는 세계에서 살아남자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능력 있는 편집자들이 떠나지 않고 살아남아야 출판도 세상에 힘 있게 자기주장을 할 수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이 세계에 관한 편집자의 담론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이 무엇인지, 문제가 무엇인지, 거기에 적절히 대응하는 방식이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일해야 할까요? 묻고 싶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편집자 되는 법은 무엇인가?”

● **편집자는 이직한다, ‘호모 이직<sup>移職</sup>쿠스’**

‘호모 이직쿠스’. 제가 작년에 만든 말입니다. 10년쯤 진득하게 일해야 역량 있고 영향력 있는 편집자가 될 수 있을 터인데, 그쯤 되면 업을 접고 떠나는 이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누구나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이런 현실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누가 단번에 이 상황을 타개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일하는 사람으로서 ‘일에다 코를 박고’ 좋은 책을 만들기만 해서 앞날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쨌든 편집자의 진로는 편집자 자신이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회사가 장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편집자가 일하려면 출판사에서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출판사가 있어야 편집자가 일할 수 있죠. 편집자 스스로 ‘일하기 좋은’ 출판사를 찾아가서 자기 자리를 보장받도록 일해야 역량이 쌓일수록 경력에 맞는 책임을 부여받고 능력을 확장해 갈 수 있을 겁니다.

### 실태 1) 사업장 규모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의 2016년 실태 조사 자료(교과서, 학습 참고서, 학습지, 아동 도서 제외한 일반 단행본 출판사와 학술/전문서 출판사만)에서는 종사자 수가 한두 명인 출판사가 전체 3,018곳 가운데 1,635곳 즉, 54%이며, 4명 이내 출판사가 74%입니다. 종사자 수가 10명 이상인 곳은 전체 출판사업체(교과서, 학습 참고서, 학습지, 아동 도서 등 포함)의 12.5%에 불과했습니다. 대한출판문화협회가 2015년에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그해 납본 출판사는 2,855개였습니다. 그 가운데 5종 이하를 발행한 출판사 1,465곳(51.3%)을 포함, 납본 출판사의 81.3%가 한 해 20종 이하를 발행했습니다. 적게 잡아 한 명의 편집자가 연간 다섯 종을 만들 수 있다고 보면, 편집자가 한 명인 1인 출판사가 절반, 4명 이내인 곳이 80%라는 말입니다.

### 실태 2) 이직

편집자의 이직과 관련된 현실을 여러 데이터가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근속 연수 3년, 실무 정년 마흔.” 2015년 언론노조 출판지부(이하 출판노조)에서 구글 독스 Google Docs를 이용해 실시한 조사(응답자 501명)에 따르면, 출판 종사자 근속 기간이 평균 3.1년, 3년 미만은 53.8%였습니다. 5~9년차 경력자 중에서도 한 출판사에서 일한 근속 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가 34.4%, 5년 이상인 경우는 20.2%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58.3%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35.3%, 40대가 6.4%였습니다. 2016년 하반기에 진흥원이 실시한 조사에서는 30대 초반이 29.4%, 30대 후반이 26%로 전체 종사자의 55.4%가 30대였고, 20대는 26.4%, 40대 이상 종사자는 전체의 18.2%로 집계되었습니다. 두 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 마흔 이후 종사자 수는 현격히 줄어듭니다. 편집자 자신의 경력과 관련해서 본다면 30대에 약진하되, 마흔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말이겠지요. 회사로서는 실력 있는 경력 편집자들이 적절한 방식으로 결합해서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 ● 편집자인 당신은 지금 어디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해답을 고안할 수 있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출판은 곧 광의의 편집입니다. 편집은 출판의 핵심입니다. 편집자가 일해야 출판이 삽니다. 일하는 편집자는 일에 담당해야 합니다. 자신이 누구이며,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를 자신의 언어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편집자는 자신이 만든 책으로 발언한다”라는 말은 현재에도 유용하지만, 현실은 거대한 혼돈입니다. 큰 그림을 살피고 일을 설계하고 과정을 미리 가늠해 보기는 커녕 하나하나 헤쳐 나가기도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상황이지요. 편집자들이 스스로 어떤 책을 만들고 있는지, 만들었는지, 만들게 될지를 제대로 모르는 것은 아닐까요? 책만 열심히 만들면서 세상을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편집자가 속한 세계는 위기에 처해





하네요. 제가 그 6.4% 안에 들었거든요. 그럼 저는 살아남은 걸까요? 저더러 “어떻게 살아남았나요?”라고 물으시면…… 음, 잘 모르겠고요. 『편집자 되는 법』에 대해서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질문에 답하는 대신에, 오늘은 그냥 제 얘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는 서른 넘어서 출판사에 입사를 했어요.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가 서른한 살. 대학원 다니다가 들어왔거든요. 대학원을 휴학하고 출판사에 들어왔는데, 어찌다 보니 편집자가 되어 있었고, 어찌다 보니 책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한테 일을 가르쳐 주셨던, 실력이 쟁쟁한 선배님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이 지금 어디 계신가 보면, 어떤 분은 프리랜서로 외주 편집을 하고 계시고, 어떤 분은 출판사를 개업했다가 망하기도 하셨고, 어떤 분은 예쁜 꽃을 만들고도 계시고, 출판과 관련 없는 자영업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들이 출판사를 떠날 때 대부분 마흔 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십수 년 전 이야기인데, 여전히 우리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때 쟁쟁했던 선배들은 왜 살아남지 못하고 저는 살아남았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기가 뭣하지만, 저는 살아남은 대부분의 40대 이상 편집자에게는 굉장한 행운이 따랐다고 생각해요. 이걸 부인하고서는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걸 전제로 말씀드려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력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 그냥 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전 15년 정도 동안 네 군데 출판사를 다녔어요. 사실은 다섯 군데인데, 대형 출판사 한 곳을 3주 정도 다니고 간신히니 거긴 제 경력에서 빼고 싶습니다.(웃음)

제가 지난 주에 모 매체에 기고했던 글의 일부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얘기가 그 글에 있거든요.

“저의 30대를 사로잡은 건 ‘좋은 책’이었습니다. 좋은 책 속에 길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좋지 못한 책, 더 나아가 나쁜 책들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책을 소개하고 만들던 저의 30대는 소위 ‘나쁜 책’들과 싸우는, 고요했으나 뜨겁던 시간들이었습니다. 희망과 슬픔의 책들 사이에서 환호했으나 한편으론 텍스트의 본위를 잃고 독선과 오만에 휩싸이던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좋은 책’들이 저를 배신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저를 배신한 건 ‘좋은 책’을 쓰고 만들던 이들의 위선이었습니다. 그것은 더욱 교묘하고 공고했습니다. 분노로 시작했으나 절망으로 마무리되었던 건, 결국 저의 현실도 다르지 않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의 위선은 좋은 책이란 허명 속에 은밀하게 자리잡고 있었지요. 꼬박 10년을 일했던 출판사를 제 발로 나온 건 그즈음이었습니다.” (『책에 걸박당한 편집자의 운명에 대하여』, 월간 『채널에스』, 2019년 2월호 중에서)

제가 30대를 오롯이 보냈던 출판사를 나온 직후에 했던 생각들인데요, 저한테는 그랬습니다.



살면 살수록 좋은 책이 뭔지 정말 모르겠어요, 사실은. 30대에는 상당히 투철했거든요. 좋은 책, 나쁜 책, 물리쳐야 할 책. 그런데 이제는 그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게 느껴지고, 제가 생각했던 좋은 책이 과연 좋은 책일까 의문이 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별로 좋지 못한 책을 통해서도 굉장히 감응하는 독자들을 보면서 저의 위선이 막, 무너지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책을 만드는 사람들의 위선이 나이가 들어 가면 갈수록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잘 보입니다. 그것과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남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저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랬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다닌 출판사를 그만두고 옮긴 두 번째 출판사, 거기서 제가 냈던 첫 번째 책이 사교육 시장을 비판하는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출판사의 본사가 국내 굴지의 사교육 회사였거든요. 지금 같아선 절대 그렇게 안 하는데, 그때는 굉장히 무모했던 것 같습니다. 그 곳 회장님이 입사하는 저를 불러서 책을 맘껏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때를 놓치지 않고 기획의 전권을 달라는 무모한 얘기를 했지요. 6개월을 준비한 끝에 브랜드를 만들고 첫 책을 만들었습니다. 자랑 같은데요, 첫 해 매출 목표를 200% 넘게 달성했어요. 그럼 그 출판사에서 행복하게 일을 했어야 하는데요. 그러나 3년 차 정도 되었을 때(네, 그 3년입니다),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애초의 바람과는 달리 저는 책을 마음껏 만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여러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퇴사했습니다.

그다음 이직한 출판사의 대표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연봉 조건도 나쁘지 않았고요. 매출 계획보다는 좋은 목록을 원한다고 하셨어요. 5년 정도의 플랜을 제시하면서, 그 전까지는 매출에 대해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했지요. 이런 좋은 제안이 어디 있습니까? 그곳에서도 브랜드를 만들고 책을 냈습니다. 그곳에서도 결국 3년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곳을 그만둔 이유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는, 알 만한 이유들일 테니까.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40대 편집자로 살아남는 법에 대해 잘 모르겠어요. 저랑 같이 일하기 시작했던 편집자들이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규모가 조금 큰 출판사에 자리 잡은 친구들 아주 소수가 남아 있고, 대부분은 사라졌습니다. 사라진 친구들과 달리 제가 여기에 있는 건 무엇 때문일까요? 제가 운이 좋았거나 제가 만든 책이 운이 좋아서, 제가 만든 어떤 책이 잘 팔려서 마치 제가 실력 있는 편집자로 보였거나 그런 게 아니었을까. 또 한편으로는, 어쩌면 제가 타협하며 살았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제가 만든 책 가운데 제법 많이 팔린 책도 있고, 많이 안 팔린 책도 있고, 좋은 책도 제법 많이 만들었던 것 같고. 간혹 막 울면서 만들었던 책도 있어요. 너무너무 만들기 싫어서 ‘이런 책을 만들어야 해?’ 그러면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견뎌야 만들고 싶은 책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출판계 선배님께서 술을 사 주시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이제 시리즈를 기획해야 해”라고 하셨어요.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책을 기획해야 한다느니, 얼마를, 어느 정도의 인력을 투자해야 한다느니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얘길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과연 내가 얼마에서 그런 책들을 만들 수 있을까? 달리 얘기하면 내가 얼마나 오랜 시간을 얼마에서 일하겠는가? 내가 10년을 내다보는 기획을 한다고 해도, 과연 그 기획의 결과를 볼 수 있을까?

저는 편집자가 노동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영업자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기획으로 자본가의 투자를 이끌어 내야 하고 설득해야 하고. 사실 이 책 잘 안 팔릴 걸 알면서도 사장님에게는 잘 팔릴 것처럼 설득해야 되고, 해서 기어코 만들어야 하고, 그러다 안 팔리면 또 깨지는 것이고, 그런 거겠죠. 내가 만든 책의 채산성으로 그 가치를 입증해 내야 하고. 좋은 책이란 결국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고정비에 대한 정확한 책임감을 가지고 변동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겠죠.

제가 김빠지는 얘길 많이 했는데요, 좋은 얘기도 조금 할게요. 제가 최근에 감명 깊게 읽은 책이 있습니다. 『사상으로서의 편집자』(한울, 2015)라는 책인데요, 정말 좋은 책입니다. 그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편집자는 사상의 텍스트를 사회화하는 자들이다.” “편집자는 사상의 형식을 만들어 내는 자들이다.” 저는 이 문장들을 이렇게 이해했어요. 사상을 가진 편집자가 저자의 사상을 다룰 수가 있고요, 저자의 사상을 하나의 형식으로 담아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격동의 세월을 살아 낸 대단히 뛰어난 사상가의 탄생은 그들의 배후에 편집자가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이 책에 나옵니다. 여기서 ‘사상의 형식’이라는 말은 자칫 사상을 어떤 상품으로 만들어 낸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요, 단지 그것만은 아닙니다. 이 책은, 사상을 담아내는 책이, 철저하게 시장의 가치를 반(反)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책은 시장의 가치와 타협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가치를 전복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꼭 읽어 보세요.

요즘에 드는 생각은요, ‘나를 버티게 하는, 비참하고 비관적인 편집자의 시간을 견디게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입니다. 멋지자고 하는 얘기 같기도 한데요, 제가 얼마 소속으로, 얼마에서 월급을 받고 있지만, 결국 저는, 나아가 우리는, 출판사가 아니라 ‘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가. 이 말을 ‘3년 이직’의 명분으로도 삼을 수도 있겠네요. 어디에 있든 우리는 책을 만들어 내고 책에 속하는 자들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통계상으로는 6.4%, 40대 편집자에 속한다지만, 사실 그런 수치는 잘 모르겠고요. 다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 열심히 읽고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더해 행운이 따라야 살아남겠지만, 행운도 확실히 실력이 있는 사람에게 따라오는 것 같아요. 텍스트를 분별하고 보듬고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에게만이 기회도 주어지겠죠. 저는 그 기회를 행운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행운을 빕니다.



공황장애가 왔어요.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지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둡니다. 정말 방황기였죠. 그리고는 짝꿍이랑 가방 하나 메고 여행하고 치료받고 해서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그 뒤로, 취직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여 회사를 알아보는데, 이제 그전처럼 마음 쏟는 그런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흔한 직장인처럼 건조하게 회사를 다니고 싶다, 그래서 경제경영 분야 자기계발서를 만드는 출판사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10개월밖에 못 다녔어요. 그리고 다시는 책을 만들고 싶지 않다는 마음으로 출판계를 떠납니다. (여러분, 지치지 않으셨죠, 아직?) 다음에는 어딜 가냐면, 어플리케이션 회사에 들어갔어요. 다섯 번째로. 당시 아이패드가 초창기 보급되던 때였는데, 무궁무진한 걸 해 볼 수 있는 아이패드가 나온 거예요. 예전에 『해리포터』 보면서 ‘책이 어떻게 말을 해?’ 하면서 신기해하던 게 현실로 다 구현이 된다는 거예요. 신이 나서 갔죠. 근데 그렇게 가능성이 다 열려 있으니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제약 속에서 재미를 느끼고, 뭔가를 만들었다는 걸 몰랐던 거죠. 그래도 어떻게 꾸역꾸역 해서 개발한 게, 첫 번째 mock-up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회사가 폐업을 합니다.

그때 마침 오래 알고 지낸 선배님이 출판사를 창업하십니다. 그분이 불러 주셔서 의자 하나 사는 것부터 같이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맡아 하게 되었고요. 정말 힘들었지만 진짜 재미있게 일을 했어요. 근데 그 회사도 경영이 악화되어 큰 회사로 합병이 됩니다. 저도 합병된 회사로 따라가죠. 거기가 일곱 번째 회사였어요. 근데 재밌게도, 그 신생 출판사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쌓은 것들이 합병된 회사에 가서 꽃을 피웁니다. 그때부터 베스트가 나오는 거예요. 성과가 조금만 더 빨리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성과가 좋은데도, 회사 사풍이 저와 맞지 않았어요. 책 만드는 일 이외의 것들이 강조되는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또 사표를 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2016년에 김학원 대표님이 휴머니스트에서 2030 세대를 위한 시리즈를 만들자는 가설로 팀을 꾸리셨어요. 처음 합류해서 ‘자기만의방’이라는 브랜드를 런칭했고 지금까지 책을 만들어 오고 있어요. 올해 제가 휴머니스트 입사 4년 차더라고요. 제 인생에서 가장 길게 다닌 회사입니다. 저는 이제서야 스스로 무슨 책을 만들고 싶은지 알 것 같아요. 15년이 되어서야. 아까 발제 때 나온 ‘살아남은 6.4%’, 그러니까 40대 편집자에 올해부터 저도 속하게 되었어요. (이옥란: 18.2%이기도 해요! 진홍원 자료에 따르면요.)

음, 저는 좀 더 실용적인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이러하데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걸 디폴트로 둔다면,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제가 워낙 이직 경험이 많다 보니 이직 상담을 청하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때마다 해 주는 얘기가 있는데요. ‘점이 모여서 선이 된다’고 한 스티브 잡스의 말입니다. 잡스가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냐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은 앞을 내다보고 점을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회고하면서 연결될 수 있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각각의 점이 미래에 어떻게든 연결될 거라고 믿어야 합니다.” 저는 사실 이 문구를 마음에 안고 계속 일을 했거든요. 오늘 주제가 경력관리잖아요. 경력관리라는 게 뭘까 생각하니 점을 찍어서 선을 만드는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이란 뭘까 생각해 보면, 지금 다니는 회사일 수도 있고요, 내가 만드는 책일 수도 있고, 크고 작은 경험들, 내가 읽는 책, 만나는 사람, 사건 사고들, 다 포함되겠죠. 만일 내가 앞을 내다보고 그 점들을 찍으면 편하겠죠. 얼마나 편하겠어요. 우리가 여기 모일 이유도 없어요. 근데 그러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선을 바로 그을 수는 없지만 점을 쿵쿵쿵쿵 찍어서 내가 원하는 선의 모양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런 방향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저는 ‘편집자로서의 비전’이라고 말하는데요. 비전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그림 예세이 전문 편집자가 되겠다라든가, 베이킹 전문 편집자가 되겠다라든가, 하는 게 비전이 될 수 있고요. 전문 분야나 주제가 될 수도 있겠죠. 제 경우를 예로 들자면, 마음산책 그만둘 때 “저는 하이브리드한 실용서를 만들겠어요”라고 했던 그 포부, 그게 첫 비전이었는데요. 실용서 하면 떠오르는 그런 편집 방식이나 주제들을 벗어난 책들을 만들어 보고 싶었거든요. 반대로 실용서에서 다루지 않는 주제들을 실용적으로 푸는 거. 그래서 회사를 여기저기 옮겨 다니기는 했지만 사실 마음에 그거 하나는 갖고 있었어요. 그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제가 요 6.4%에 어떻게 들게 되었을까? 운이 좋았던 것 같고요. 그나마 이 점들을 모아 온 게 유효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점을 찍어야 할지 계속 고민하고 있죠.

그래서 한번씩 이직을 생각하는 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자기 비전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해요. ‘좋은 책을 만들고 싶다’ 같은 막연한 생각보다는 좀더 구체적인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좋더라고요. 비전을 세워 두면 유용한 게, 점 찍을 때 덜 헛갈리거든요. 덜 막막하고. 그리고 그건 계속 바뀌어요. 내 기대가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요. 그러니까 방향을 수정하는 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바뀌는 게 당연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내가 찍는 점들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중구난방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 이력을 두고 놀리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혼자 종합출판을 할 셈이냐?” 하면서요. 근데 저는 나름 맥락이 있었거든요. 여기저기 점을 찍을 수 있지만 결국은 어떤 방향을 향해 가는 것, 핸들링하는 것, 그게 어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경력관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오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최근에 우연히 어떤 한 달 차 편집자님의 SNS 글을 봤어요, 그분 SNS에 너무 괴로워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괴로워하는 이유가 스스로 하는 일을 장악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속상하더라고요. ‘아니 아니, 그건 나도 못 해요’라고 댓글을 달고 싶었어요. 음, 제가 언젠가 20대의 나한테 내가 지금 가서 조언을 해 줄 수 있다면 뭐라고 할까를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가 다리 꼬고 앉지 마라(허리









질문 (1) 『편집자 되는 법』을 읽고 편집자가 되는 법을 알려고 왔는데 분야를 바꿔야 할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말씀하셨듯이 호모 이직쿠스 시대에 혹시 6.4% 안에 들 수 있는, 살아남는 법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 2016년이나 2017년에는 자기계발서, 2018년에는 심리학, 올해는 콘텐츠 그리고 크리에이티브에 대해서 책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변화가 있을 때, 제가 추구하는 편집을 계속해야 하는지, 아니면 시대 흐름에 맞춰서 다른 분야의 편집을 배워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박태근 세 분 다 시선을 피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요. 세 분이 답변을 생각하시는 동안에 두 번째 질문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시장의 급변에 어떻게 적응하고 대응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서점에서 일하니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문제 같아서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시장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저도 출판 관련된 트렌드 강좌 이런 거 해 달라는 제안을 종종 받는데요. 저는 예상과 예측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현실은 구체적으로 출간된 책으로 구현되거나 구성되게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올해 나올 책의 목록을 아주 소수만 갖고 있어요. 목록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실제로 구현될 책의 세계와 그것 이면에서 벌어지는 현실 사회의 문제를 겹쳐 볼 수 있을 텐데, 저는 전자가 안 되는 상황에서 후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크게 의미 있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지나간 해를 정리할 수는 있는데, 다 벌어진 일이니깐요, 다음에 올 일을 예측하고 그것에 따라 움직인다는 게, 물론 가능한 분들도 있을 테지만 제가 느끼고 경험한 범주 안에서는 무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패널 여러분) 아직도 답변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럼 질문을 다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6.4% 안의 출판인으로 살아남는 방법은?(행운은

빼고요.)

두 번째, 초보 편집자로서 앞으로 취업을 하거나 준비를 할 때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해야 할지?

이옥란 편집자가 되려고 할 때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물으신 거죠? 『편집자 되는 법』에서 업계가 불안정하고, 전망이 10년 지나면 알 수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업계에 못 오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는 않을까요? 책을 만드는 편집자들과 만나 보면 이 일이 어렵지만 이 일이 좋다, 즐겁다, 보람 있다고 얘기하시거든요. 어려운 일은 편집자가 아니라도 어렵겠죠. 그런데 어쨌든 편집이라는 게, 오래 일하실수록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점은 확실하거든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이 업을 시작할 때 좋은 회사에서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질문자: 행운이...?) 네, 행운이 따라야겠죠? (웃음) 자기 자신이 뭘 하고자 하는지를 확인해야 해요. 무조건 ‘편집자란 직업이 있나? 그럼 나한테 맞지 않을까?’ 해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잘하는지, 무엇 때문에 책을 만드는 일을 하려고 하는지, 책 만드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는지 등에 대해 충분히 조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내가 읽어 온 책들을 다시 한번 보는 거죠. ‘내가 주로 읽어 온 책을 낸 출판사가 길벗이구나, 휴머니스트구나. 내가 주로 알마출판사의 이런이런 책을 읽어 왔네? 그러면 알마를 조사해요. 책에도 잠깐 썼습니다만, ‘지원서 쓰는 법’을 알려면 전수조사, 그러니까 내가 알아볼 수 있는 모든 것, 회사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봐야 하는 거죠. 하지만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일단 온라인 서점에 가서 이 회사는 몇 년부터 지금까지 몇 종의 책을 냈고, 1년에 몇 종씩 내고 있고, 기획의 방향은 어떻고, 저자군은 어떻고, 외서가 있는지? 그다음에 중요하게는 최근에 낸 책이 몇 종 정도 되고, 판매지수가 어떤지 등등. 예스24와 알라딘에서는 판매지수를 제공하죠. 판매지수도 알마의 책만 봐서는

알마의 판매지수가 뭘 말하는지 알 수 없어요. 알마와 비슷한 유형의 출판사를 같이 조사해서 비교하면 그 수치가 뭘 얘기하는지 감으로 올 거예요. 최근 신간의, 1년간 종수를 통해서 일하는 편집자의 수, 즉 회사의 규모도 가능해 볼 수 있죠. 또 대표 브랜드만 갖고 출판사를 다 알 수는 없잖아요? 한 출판사가 여러 브랜드를 내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홈페이지를 가서 어떤 브랜드를 내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서점에 가서 그 책을 손으로 만져 봐요. 유유는 과감하게도 날개가 없는 책, 서점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이거 헌책처럼 되기 쉬운데, 어쨌든 과감하게 작은 책을 내는 이런 경우도 있죠. 조사하고자 하는 출판사의 책들을 직접 보고 손으로 만져야만 온라인 서점에서 보던 거랑 다른 느낌을 확인할 수 있어요.

최근에 5년 차쯤 된 편집자 분한테 이런 말을 들었어요.

“좋은 출판사는 일곱 개가 있다. 그 회사 아니면 가지 말라고 하고 싶다.” 그 일곱 개가 어느 회사인지는 안 물어봤어요.

출판사를 조사할 때는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으로 얻으세요. 출판사 홈페이지에 가서 보도자료를 내려받아서 한번 보세요. 보통 출판사들은 보도자료를 업로드해 놓거든요. 만약 그 책을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보도자료의 내용이 다르게 보일 텐데요. 편집자가 그 책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일 거예요. ‘이 편집자가 이 책 만들면서 정말 행복했겠다’ 싶은 보도자료가 많은 회사라면 일해 볼 만한 회사일 가능성이 높죠. 일하는 사람이 흥이 나서 일하는 회사. 보도자료에는 책임편집자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그 편집자에게 “한번 만나 주세요. 당신이 일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편집자로 일하고 싶은 사람인데 조언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할 수도 있겠죠? 정보를 많이 모으고 할 수 있으면 담당 편집자에게 직접 한번 메일을 보내든지 그런 기회들을 스스로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흔 지나서 살아남기. 이권 당장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기 어려운 주제네요. 우리가 6.2%보다 18.2%를 기억하는 게 어떨까요? 진흥원 자료를 따르는 걸로요. 저도 공교롭게도 마지막 회사를 나온 게 마흔한 살 때였어요. 마흔한 살 봄에. 음, 유유출판사 조성웅 대표님도 출판사 편집자셨죠. 제 생각에는 좋은 회사에 계셨지만 그 회사에서 유유출판사의 경력만 한 세월을 지냈다면 유유가 해낸 정도의 일을 해내실 수 있었을까요? (웃음) 대표님은 자기 것을 하기 위해서 출판사를 낸 경우거든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작은 출판사가 많습니다, 1인 출판사들. 일이 쉬운가 어려운가와 상관없이 도서목록만 본다면 그분들은 책으로 이루고 싶은, 이루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확연히 있는 거죠. 그런 아이디어가 출판을 더 풍성하게 하는 점도 있을 테고. 마흔쯤 되는 편집자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세 가지 정도라고 봐요. 하나는 출판사 안에서 승진해서 관리자의 위치로 올라가는 방법. 또 하나는 사내에서 브랜드 하나를 맡는 식인 거죠, 그게 임프린트일 수도 있겠는데, 회사 안에서 지원받으면서 자기 식의 기획을 하는 걸로 자리잡는 것. 세 번째는 자기 출판사를 하는 방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편집자 자신이 설 자리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건 개인이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편집자 여러분들에게 제안해 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3년 차, 5년 차, 10년 차일 때 직무적으로 전혀 다른 다른 능력이 요구됩니다. 그럼 그걸 대비해야 하죠. 근데 출판사가 그걸 할 수 있게 해 주지 않아요. 팀장 연수 해 주는 회사가 얼마나 되겠어요? 규모만 봐도, 10인 이상 출판사가 12.5%에 불과해요. 여력이 없어요, 책 만드는 일만으로 버겁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임을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딱히 정해진 것은 없어요. 작은 모임일 수도 있고 좀더 크게 모임 수도 있고요. 연구모임이나 독서모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실무를 공부하는 그런 모임일 수도 있겠죠. 편집자들이 모여서 자기가 일하는 환경을 좀 더 의미 있게 만드는 방안을 같이 고민하고 그걸



1관은 생활관이에요. 여기에는 집수리나 인테리어 책도 있고, 옷장 정리하는 책도 있어요. 2관은 여행관인데, 아까 말씀드린 식물도감 같은데 밖으로 나가 초록을 즐기는 책, 그것도 여행이잖아요? 그래서 2관에 있어요. (서점 분류로는 에세이고요.) 이렇게 저희 브랜드 내에서 실험을 해 보고 있어요.

말씀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해 봤냐면요, 이옥란 선생님께서 책에도 쓰셨지만, 편집자가 누구냐에 따라 같은 원고도 달라지잖아요. 얼마 전에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요즘 TV 프로그램 「방구석 1열」을 되게 열심히 보고 있거든요. 다른 작업자들 얘기 듣는 게 재밌어서요. 거기에서 배우 송강호 얘길 했어요. 영화 『변호인』에서 “한번 안아 봐도 되겠습니까?” 하는 대사가 나오는데, 그게 대사만 놓고 보면 오글거리는 대사거든요. 그런데 송강호가 그 대사를 했기 때문에 효과를 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같은 인테리어 책이라도 어떤 저자를 컨택하느냐에 따라서 톤앤매너가 달라지고 당연히 편집도 달라지겠죠. 결국은 자기 브랜드 얘기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분야보다는 자기만의 내러티브를 갖는 것, 내가 만든 책들 안에서 분야는 다르지만 그 안에서 내가 뭘 만들려고 했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김진형                    분야 얘기를 저도 좀 할게요, 서점에서의 분야. 알마에서 낸 책들을 보면, 과학 에세이가 많거든요. 올리버 섹스 책들도 그렇고, 『랩걸』도 그렇고요. 진지하게 하는 얘긴 아니니까 가볍게 들어 주세요. 저희는 ‘아, 박태근 엠디가 좋아할 만한 책은 과학이다’ ‘송○○ 사장님이 좋아할 책은 에세이다’ 이렇게도 접근합니다, 사실은. 아주 현실적으로요. 어떻게 시장을 공략할 것이냐. 에세이 시장에서 박 터지게 싸워서 팔 수 있는 책이다 싶으면 에세이 쪽으로 가기도 합니다. 에세이 쪽이 파이는 크잖아요? 근데 반대로 과학 쪽에서 안정적으로 승산이 있다고 하면, 에세이 성격이 강한테도 과학 쪽으로 가기도 합니다. 현장에서는 아주 현실적인 판단을 한다, 이런

얘기를 걸가지로 좀 드리고요.

이제부터 김빠지는 얘기를 드려야겠네요. 질문자께서는, 스스로 하는 일에 대한 질문을 상실했을 때 편집자로 계속할 수 있겠냐, 이걸 물으신 거죠?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질문과 호기심과 상상력을 잃어버리면 편집자로서 정말 승산이 있겠는가. 저는 대단히 비관적으로 봅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팀장이 되고 편집장이 되면 사실 이런 부분이 사라지거든요. 다 아는 것 같고, 다 해답이 있을 것 같은데, 그때가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기획회의를 해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젊은 친구들 앞에서 절대 놀란 척 안 하죠, 실은 놀라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잃어버리면 편집자로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세상에는 무수한 통념들이 있잖아요. 이래야 된다, 이래야 잘 산다, 이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통념들이 되게 많죠. 어떤 책들은 그런 통념을 강화하는 쪽으로 나가고요, 어떤 책들은 그런 통념을 깨뜨리는 쪽으로 나가잖아요? 어쨌든 제가 만드는 책은 후자 쪽이기 때문에 기획회의할 때, 통념을 이야기하는 편집자들이 있으면 화가 납니다. 그걸 깨뜨려야죠. 아주 쉽게 생각하면 통념, 상식을 그냥 가져와서 그걸로 기획을 하면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고요. 아주 당연하게 생각했던 전제들을 ‘정말 그런가?’라고 묻는 것에서부터 기획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런 질문을 갖고 시장에 그런 책이 나와 있는가도 봐야 하고, 그런 책들이 일본 같은 해외 시장에서는 어떻게 판매되고 있는지도 살펴보고요. ‘아마존’을 보면 주제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아마존 에디터는 웬만한 출판 에디터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단, 아마존 메인에 있는 책을 보시면 의미가 없어요. 굉장히 세분화된 항목을 찾아 들어가서 거기서 수위를 차지하고 있는 책들을 봐야죠. 그런 책들은 대부분 통념을 깨는 책들이에요. 그런 책에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들이 책을 초이스하는 방식도 살펴보고요.

편집자가 질문을 잃어버리면 대단히 힘들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보희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희망을 드리고 싶어서요. 질문을 잃어버리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편집자로서의 나 자신 때문이 아니라 환경이 너무 힘들 수도 있고요, 지쳐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편집자들, 마음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저도 지난 가을에 너무 힘이 들었어요. 저희 자기만의방 브랜드가 정말 책 엄청나게 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대표님이 부르시더라고요. 갔더니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물으시길래 “아, 괜찮아요. 이 정도는 버틸 만합니다” 그랬더니만, 버티지 못할 때까지 가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지금 놓고 쉬어야 한다고, 환기가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문이 딱 닫힌 상태에서 계속 일만 하고 있다고, 잠깐 문을 열어 줄 시간이 필요하니 생각을 온전히 끊고 문을 열어 줄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고 해 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문을 한번 열어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왜 질문을 잃어버리게 됐는지 그 이유를 한번 먼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옥란                    저도 짧게 덧붙여 보자면, 그 문제를 개인적인 문제로만 풀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게 어떤 분위기일 수도 있고 실제 사람일 수도 있겠는데, 어느 쪽으로든 도움을 청했으면 좋겠어요.

김보희                    네, 저랑 만나시죠.

박태근                    반론이나 비판도 환영합니다.

●  
질문 (3)                    김진형 주간께 여쭙보고 싶은데요. 직장인으로서 회사 조직에 속한 한 명의 편집자로서의 나와 독자, 취향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나 사이에 괴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나는 에세이, 문학에 관심이 많은 독자인데 경제경영이나 자기계발 책을 낸다든가 하는 식으로요. 설령 그런 사람일지라도 회사에서 잘하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더 좋은 책을 만들어 내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있을 거잖아요. 그 사이의 괴리, 간극이 있으셨을 테고 그거에 대해 고민하셨을 것 같기도 한데. 그에 대한 나름의 해답 혹은 대책, 어떻게 찾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박태근                    질문이 나올 때마다 모두가 공감하고 아는 얘기인데 참 대답하긴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심호흡을 한 번 했습니다.

김진형                    아까 농담 비슷하게 말씀드렸지만, 울면서 만들죠. 울면서 만들어요. 그런 거잖아요. 제가 독자로서 좋아하는 텍스트를 편집자로서 책으로 만들 때 행복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대부분은 제가 ‘만들어야 할’ 책을 내죠. 저랑은 안 맞지만 팔릴 만한 책을 스스로 기획하기도 하죠. 저의 취향대로만 책을 만들어서 망하게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사장님이 만들고 싶어하는 책도 내고요. 그럴 때 되게 속이 상하지만 그래도 진심을 다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제가 만들고 싶은 책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래도 다른 분들에 비하면 대단히 행운인 게, 상대적으로 이런 고민을 덜 하면서 현재 자리에 이른 것 같아요. 하지만 다른 많은 편집자들은 그러지 못하는 것 같고요. 자기가 만들고 싶은 책, 내고 싶은 책을 만들어 내는 경우는 생각보다 드물어요. 제가 다녔던 회사 가운데 하나가 교재를 만드는 곳이었어요. 교재와 교과서가 주력 도서였는데, 대학교재 매출이 떨어지니까 단행본을 만들려고 한 거죠. 제가 단행본 팀을 맡았고요. 후배랑 한참 우리는 어떤 책을 내면 좋을 것인가, 꼭 만들어야 할 책이 무엇인가 상의했죠. 언젠가는 저랑 후배랑 핑크플로이드를 너무 좋아해서 핑크플로이드를 책을 기획했어요. ‘핑크플로이드로 철학하기.’ 딱 봐도 안 팔릴 것





박태근                    각자 10년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하고 게시는 것 같군요.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  
질문 (4)                    안녕하세요. 저는 효율성과  
프로세스를 굉장히 중시하는 출판사에 다니는 편집자입니다.  
프로세스와 방안을 중시하는 사풍답게, 최근 52시간 노동 이슈와  
더불어서 업무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각 팀별로 내라는  
미션을 하달받았습니다. 그래서 최근 저에게는 52시간 노동 시간이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제가 올해 4년 차 편집자인데 일하면서  
지치는 지점이 부쩍 잦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쉬고  
저의 일상을 지키면서도 효율적으로 유능하게 일하고 싶은 마음이  
어느 때보다 강합니다. 그 방안이 뽀족하게 강구되지는 못해서 선배  
편집자 분께, 어려운 질문이지만 여쭙고 싶습니다.

이옥란                    여기 계신 선배님들이 답해도  
되지 않을까요?

박태근                    아,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효율성과 프로세스를 강조하는 회산데 회사 차원에서는  
어려우니까 팀별로 그 문제를 해결하라, 본인도 그것이  
문제임을 동의하고 고민하고 있다, 그다음에 무엇인지  
궁금하다, 이런 말씀인데요. 이옥란 선생님의 말씀대로  
청중 여러분 중에 답을 갖고 게시는 분은 손을 드시면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이옥란                    짧게 질문을 들은 거라서  
제 생각을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듯한데요,  
편집자의 일이 효율과 같이 이야기되면 힘들 것 같아요.  
효율도 예를 들어 책 한 권에 물리적으로 필요한 기본  
비용과 시간 같은 것들이 보장된 상태에서의 효율이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출판 노조 설문

중에 연차별로 뭐가 제일 힘든가, 다시 말해 이직의 사유를  
묻는 항목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거기 보면 3년 차쯤  
됐을 때 이직 사유는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였거든요.  
3~5년 차쯤 되면 가장 열정적으로 일하고 아이디어도 있고  
열심히 하는 때잖아요.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일이 점점 더  
많이 주어지는 거죠. 더 잘하길 바라고요. 그보다 연차가  
높아지면 사장님과 생각이 다르다거나 경영 방침 때문에  
힘들다는 응답이 많았어요.

회사도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을 타개해야 하는 거죠.  
회사에 속한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려면. 그런데  
그 방안을 경영 차원에서 준비해야 할 것도 있다고 봅니다.  
답하기 어려운 문제인 것 같네요. 우선, 팀장님을 잘  
모시세요. (웃음)

박태근                    주 52시간 노동이 사회적으로도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회사 차원의 효율성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다고 하니까 답답한 노릇이긴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3~5년 차가 이직하는 이유 중 가장  
큰 게 과도한 업무, 모자란 노동 시간인데, 말씀처럼 그때가  
신나게 일할 시기라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갈아 넣게 되는  
상황들을 한참 지난 뒤에야 깨닫게 되죠. 보통 건강악화로  
깨닫게 되는데요. 저도 2년 전쯤에 급성폐결핵으로  
격리병동에 들어가서 2주 동안 혼자 지냈어요. 그때 저희  
사장님이 저한테 전한 메시지는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  
안 했나 봐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웃자고 하신 거 같은데  
웃을 수 없는 문자였죠. 내가 나를 갈아 넣는 줄도 모르고  
일하고 있을 때 회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 사람, 일이 좋고 즐거워서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구나’ 회사가 그런 착각을 하지 않도록 우리는 일을  
좀 덜 하고, 어쨌든 효율성이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자기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앞서도 편집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새로운 상상력, 호기심  
이런 얘기들 했는데, 평일 내내 교정지 속에 박혀 지내다가  
주말에도 집에 들고 가잖아요. 물론 보지는 않는다 해도,

교정지를 예코백에 넣어 들고 가는 순간 이미 그 주말은 실패한 겁니다. 다른 걸 하지 못하잖아요. 다른 걸 해도 마음이 불편하고요. 안 가져가야 합니다. 단호해질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20분 정도 안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질문 (5)                      편집자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사회적 방안이나 제도, 혹은 출판계 내부에서 어떤 분위기를 형성해 나가야 할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여기 오신 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옥란                      큰 얘기잖아요? 편집자의 위상을 제고하는 방안이요. 편집자가 자기 일에 관한 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편집자가 일하는 회사를 보면 편집자가 자기 말을 하는 데 자기 검열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회사들이 몇 군데가 있죠. 반대로 자기가 만든 책에 관해서 대외적으로 말하는 걸 꺼리는 상황이라면 ‘아, 이걸 내가 깨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해요. 잘 나가는 어떤 회사도 보면, 그 회사는 좋은 회사라고 말해진 회사일 텐데, 온라인 서점에서 전수조사를 해보면, 올라올수록 기획 방향이 바뀝니다. 어떤 편집자가 일했을 때 이런 책들이 주로 나와요. 최근에 어떤 편집자가 어떤 책들을 만들고 있는데 그 책들이 회사의 모양을 만드는 것으로 보이는 회사가 있어요. 그 양반들도 그 회사에서 일하면서 자기 회사 좋은 회사다, 사장님 좋은 분이라고 해요. 편집자가 자기 일에 관해서 어디에서든 자기 목소리로 일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고, 편집자 스스로 자기 목소리로 일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고요. 그러려면 호모 이직쿠스인 대한민국의 편집자들은 회사 안에 머무르지 말고, 물론 회사 일을 하는 거지만, 경계를 회사로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편집자들끼리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다, 제안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읽는 모임일 수도 있고, 연구 모임일 수도 있고, 계모임일 수도 있고, 영화 모임, 등산 모임일 수도 있고요. 연차가 지나서 팀장급쯤 되었으면 그들끼리 모여서 팀장 관리학, 인사 노무 이런 거 같이 공부하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주변의 좋은 사람들 쪽으로 가까이, 내 발로 가야 합니다. 출판계의 선배들, 꼭 편집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오신 김보희 차장님을 여러분이 만나야죠. 김진형 주간님께 한번 모임에 와 주세요, 한다든가요. 이분은 알마의 편집주간이시지만, 여러분에게는 선배 편집자잖아요. 이런 분들 쪽으로 가까이 가려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팀장을 달게 되었는데 “어머 제가 무슨, 저 못 해요” 한다든가, 팀원이 와서 뭘 물어보는데 “아니, 그걸 왜 나한테 물어. 그거 저, 주간님께 가서 물어봐”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4년 차 맞은 편집자가 회사에서 팀장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다고 하면서, 회사에서 자기한테 그러면 정말 힘들다고 말하는 걸 들었는데요. 권한과 책임 떠맡는 걸 두려워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연차가 더해 갈수록 리더 역할을 회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만약 그것을 사내에서 해결하기 어렵다면 출판계 안에서 같이 해결하도록 노력해 볼 수도 있겠지요. 함께 배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중 누군가가 서울북인스티튜트에 ‘우리 이런 프로그램 좀 개설해주세요’ 하고 강의를 제안해 주실 수 있겠지요. ‘팀장 학교 만들어 주세요’ ‘이런 직무, 잘 못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제안하시면, 우리가 필요한 것들 수요조사 해서 커리큘럼 짜는 일도 가능할 테고요. 또 작년인가 제작년인가 천년의상상 선완규 대표랑 어크로스 김형보 대표가 이런 비슷한 모임을 만들어 보려고 했던 적이 있죠. 박태근 엠디도 함께하셨던 것 같은데요. 모임을 열겠다고 하니깐 수십 명이 몰려서 관리가 안 되는 바람에 한두 차례 하다가 못하게 됐던 것 같아요. 욕구들은 있는데 거기서 판을 까는 역할을 맡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지 않으면 실제로 그런 게 만들어지기는 어렵거든요.

내가 일정 부분 기여를 하겠다, 내 시간을 좀 내겠다, 이런 마음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이상적인 얘긴데요, 편집자들이 ‘에디터스 포럼’(editor’s forum),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한국출판인회의 사장님들 모임 있잖아요. 인문사회과학 출판인협의회는 있지만, 편집자 모임은 드물죠. 여성편집인클럽 정도? 소규모로 6~7명이 모이는 모임이 있다고 들었어요. 5년 차, 10년 차 이상 된 분들도 그런 모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려면 편집자들이 실질적으로 기여할 생각이 있어야 가능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 포럼에 연회비로 10만 원 정도는 낼 수 있다, 그런 정도의 모임 정도도 제안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런 모임은 아마 여기 오신 분들보다는 10년 차 이상 되신 분들에게 제안해 볼 만한 모임 같습니다.

모여서 뒷담화하는 모임이 아니라 연구하고 제안하는 모임, 좀 더 진지한 자리들, 가령 사례 발표를 한다든지 하는 모임도 만들 수 있겠죠. 독서 모임이라면 모임에서 한 해에 열 권을 읽었는데, 그중에서 최고로 뽑힌 책의 책임편집자한테 연락하는 거예요. “잠깐 오셔서 상을 받아 주세요.” 이렇게 해 보는 모임, 판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 판을 누군가 만들어주기를 바라고 나는 그저 시간 날 때 한번 쓱 가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런 쪽에 아이디어가 모여서 의견들, 전반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편집자의 위상 문제는 누구든 문제를 내놓고 많은 이들이 거기에 대해 말함으로써 뭔가 진전된 이야기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태근                   저는 오늘 진행자라서 별다른 말을 없지 않았는데 조금 전에 하신 말씀에 조금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편집자 스스로 문제를 만들고 스스로 구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당신들은 뭘 하고 있는데?’ 하는 반문이 들곤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판을

만든다’고 할 때, 여러분이라면 그 판을 이옥란 선생님이 만들면 오시겠어요, 아니면 여러분과 가까운 5년 차 선배들이 만들면 오시겠어요? 저는 당연히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세대 혹은 모임 상황에 따라서 문제의식도 굉장히 다르고 의외로 같은 편집자끼리도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저는 느꼈어요. 각자 동세대 편집자들과 해결해야 할 문제가 분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소리 내서 외치는 팟캐스트 방송이든 어떤 형태로든 그런 것을 시도해 볼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그런 걸 했을 때 그에 대한 반응은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것의 열 배, 스무 배가 될 거라고 제가 보장합니다. 제가 팟캐스트 시작한 게 한 6~7년 된 것 같아요. 「뫼비우스의 띠지」라는 팟캐스트를 만들어서 운영하면서, 처음에는 편집자 동료들 오백 명, 천 명 정도 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업로드 하자마자 종합 순위에 오를 정도로 이슈가 되고, 거기에서 다룬 문제들이 실제로 변화를 이끌어 내는 장면들을 보면서 되게 놀랐거든요. 지금 그 방송이 끝난 지 2~3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저한테 「뫼비우스의 띠지」 시즌2 안 하나요 많이들 물어보세요. 선배, 동료, 후배 할 것 없어요. 저는 이렇게 답변드립니다. “그때 제가 또는 같이했던 친구들과 느꼈던 문제의식을 그때 효과적인 방법들로 잘 시도했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다. 지금 내가 그 친구들과 느끼는 문제는 다른 문제다”라고요. 제가 성공적이었다고 말씀드리다기보다 그렇게 해 보는 시도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말 실제로 해 보시면 기대 이상의 반응과 반향이 있을 거고 변합니다. 자기계발 강사처럼 말씀드렸네요.(웃음)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한 분 정도만 더 말씀을 들어 볼까요?



질문 6

저는 김보희 차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예비 편집자로서 출판사 입사 지원서를 쓰고 있는데







합니다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얘기가 어디로든  
올려 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자 자기 자리에서  
힘들게들 일하고 계실 텐데요, 부디 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어디서든 뵙죠.

박태근                      오늘 행사는 유유출판사에서  
나온 『편집자 되는 법』에서 비롯된 자리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행사 참여 댓글이 176개가 달렸는데, 알라딘에서  
이 책이 아직 176권이 안 나왔어요. 주변에 많이 홍보해  
주시고 널리 권해 주시고요, 오늘 행사에서 나눈 얘기들도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깊은 고민 이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에서 말씀 나눠  
주신 이옥란 선생님, 김보희 차장님, 김진형 주간님 세 분께  
박수 전하면서 오늘 행사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